옷만 팔아선 못 살아남는다… 의류사, 식품·가구 진출

패션 침체 장기화·C커머스 공세 맞서 새 먹거리 찾기
29CM, 가구·인테리어 호실적… 오프라인 매장 추진도
에이블리 '두쫀쿠'로 푸드 카테고리 확장… 검색량 '쑥'

국내 주요 패션 플랫폼들이 의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식품·가구·뷰티 등 다양한 비(非)패션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패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데다 중국발(C커머스) 플랫폼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자, 핵심 고객층의 일상 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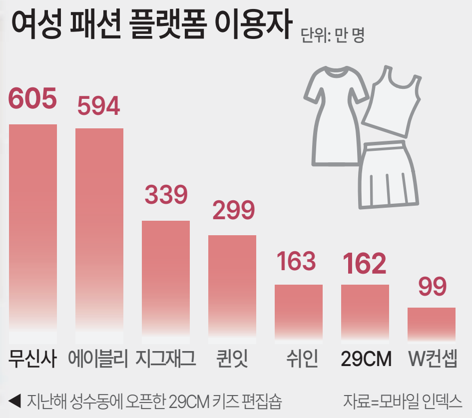
19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는 지난해 거래액 1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무신사가 29CM를 인수한 2021년(2750억 원) 대비 4년 만에 약 5배 성장한 수치다. 경쟁사 W컨셉과의 거래액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9CM의 고속 성장 배경으로는 패션을 넘어 홈·리빙, 키즈, 푸드까지 아우르는 카테고리 확장이 꼽힌다. 무신사는 29CM를 '25~39세 여성 소비자의 취향을 모두 담는 플랫폼'으로 재포지셔닝하며 가구·인테리어 비중을 꾸준히 키웠다.

서울 성수동에 '이구홈 성수', '이구키즈 성수' 등 오프라인 매장을 연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29CM의 리빙 카테고리 거래액은 연평균 50%씩 증가했다.

비패션 확장은 본업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9CM는 연내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의 오프라인 편집숍을 열 계획이다. 경쟁 플랫폼들이 잇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 지난해 성수동에 오픈한 29CM 키즈 편집숍



중저가 패션 플랫폼 사이에서는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중국 플랫폼 쉬인이 국내에서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쉬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1월 45만 명에서 12월 16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쉬인이 초저가 의류를 앞세워 10~20대 소비자를 공략하자,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등 토종 플랫폼들은 패션 외 카테고리를 앞세운 '트래픽 방어전'에 돌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푸드다. 에이블리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유행한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전면에 내세우며 푸드 카테고리를 강화했다.

지난달 에이블리 내 두쫀쿠 검색량은 전월 대비 500배 이상 급증했다. 에이블리의 푸드 카테고리 거래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

지그재그 역시 디저트와 간편식을 중심으로 푸드 셀렉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그재그의 푸드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고, 주문 고객 수와 주문 건수는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디저트 소비 확대는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뷰티 역시 패션 플랫폼들이 공을 들이는 핵심 영역이다. 무신사의 지난해 뷰티 거래액은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거래액은 190% 이상 급증했다.

에이블리는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앞세워 '1020 모바일 화장대'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지그재그와 W컨셉도 뷰티 PB와 단독 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패션 플랫폼의 이 같은 변화가 단기 트렌드를 넘어 구조적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류·뷰티 중심의 단일 소비 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며 "취향과 경험, 일상 소비를 함께 담아내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미국산 소고기, 9년 연속 국내 수입육 1위

작년 美 소고기 수입량 22만427톤 기록
돼지고기는 18만7837톤, 점유율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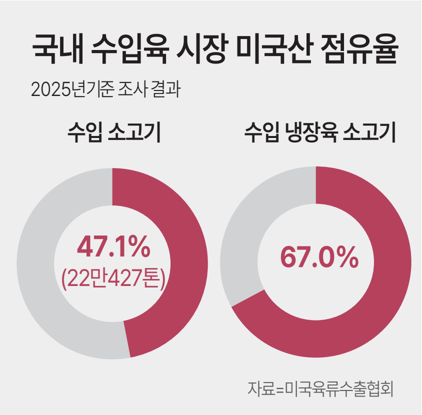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지난해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 나란히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미국이 9년 연속 국내 수입육 최대 공급국 자리를 지켰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9일 국내 통관 자료와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한 '2025년 미국산 소고기 현황'을 발표하고, 미국산 육류가 한국 수입육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소고기 수입량은 46만8122톤(통관 기준)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는 22만427톤을 기록했다. 점유율은 47.1%로, 2017년 이후 9년 연속 수입산 소고기 시장 1위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는 냉장육 비중이 29.6%에 달했으며, 국내 전체 수입 소고기 냉장육 시장에서는 미국산이 67.0%를 차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가치 소비와 미식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고품질 단백질 섭취 수요 확대가 미국산 냉장육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소고기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0.3%가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이후 하반기 조사 기준 3년 연속 70%대를 유지한 수치다. 향후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8.6%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한국은 정육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누계까지 5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을 기록하며 핵심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산 돼지고기도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55만1495톤 가운데 미국산은 18만7837톤으로, 점유율 34.1%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량 기준 2위 국가보다 1.7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협회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덮밥, 돼지고기 구이, 돈가스 등 일상 메뉴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확대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미국산 수입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1일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로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 40%였던 관세율은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돼 완전 철폐됐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테슬라 저가 공세… '모델3' 실구매가 3000만 원대

韓 전기차 시장 노려 파격가
소비자 선호 사양 대거 빠져
4000만 원 넘는 국산차 비상

Tesla

테슬라가 주력 보급형 세단인 모델3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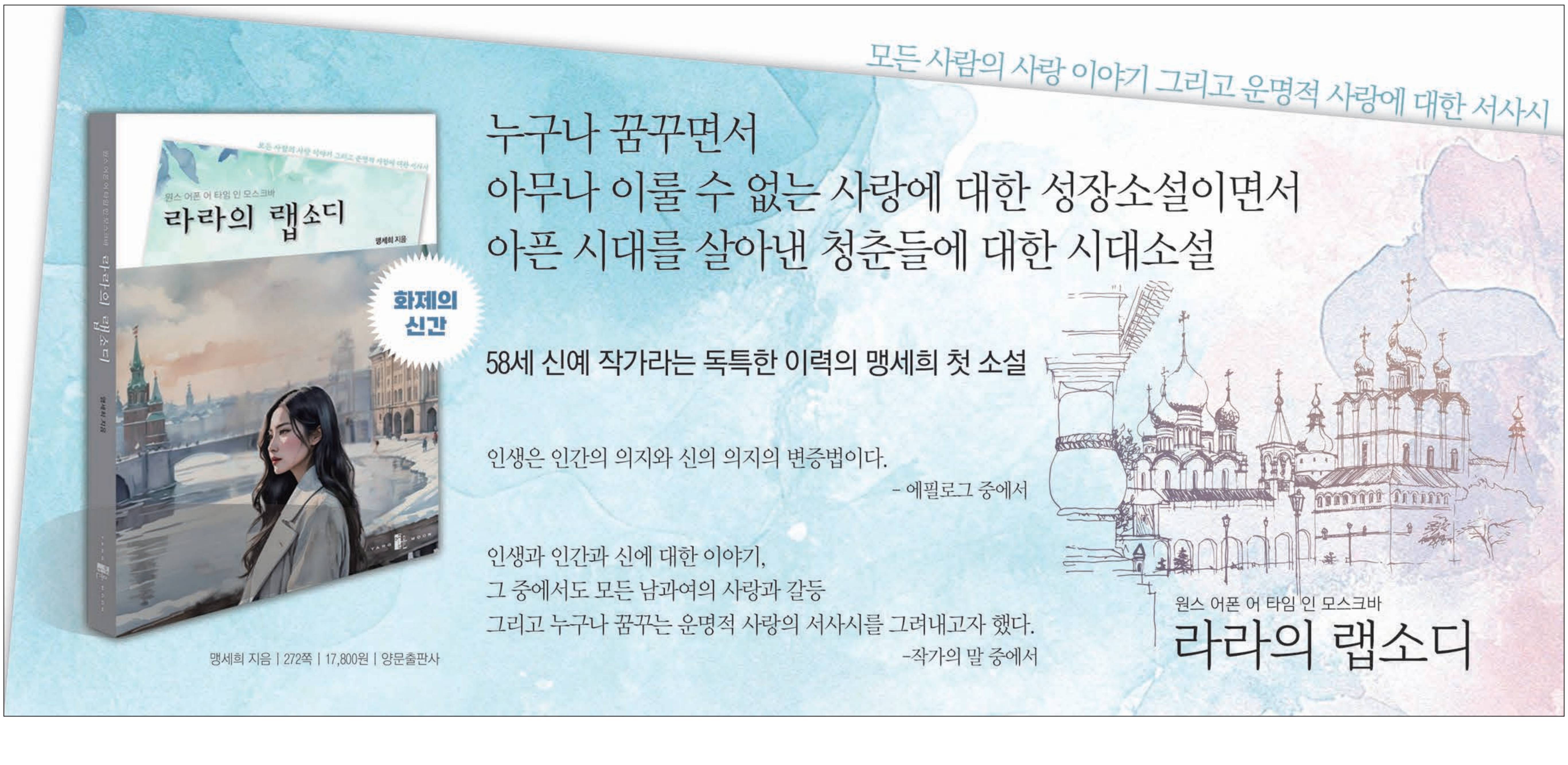
1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모델3 스탠다드 RWD와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의 가격이 각각 4199만 원, 5299만 원이라고 공지했다. 모델3 스탠다드 RWD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169만 원이고 지자체 보조금 등 다른 보조금까지 지급받을 경우 3000만 원 후반대에 스탠다드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신차 가격대가 4~50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가격 인하는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은 현대차·기아의 4000만원대 전기차 하위 트림이다. 아이오닉 5·6, EV6 등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모델3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경우 점유율 방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입 전기차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BMW iX1, 메르세데스-벤츠 EQA, 폴스타2 등은 4~5000만원대 전기차 입문 수요를 겨냥해 왔지만, 모델3가 가격 기준선을 끌어내리면서 기존의 가격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벤츠 A클래스, 아우디 A3 등 4000만 원대 수입 내연기관차 입문 수요까지 흡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선보이며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은 한국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연말에도 일부 차량 가격을 최대 940만 원까지 인하한 테슬라가 5만9916대를 판매하며 2024년 판매량(2만9750대)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수입차 브랜드 중 BMW(7만7127대)와 메르세데스벤츠(6만8467대)에 이어 3위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사양 조정에 따른 아쉬움도 있다. 모델3 스탠다드 RWD에는 1열 통풍시트와 2열 열선시트, 엠비언트 라이트, 2열 디스플레이 등 소비자 선호 사양이 제외됐다. 오디오 역시 상위 트림보다 축소돼 스피커는 7개만 적용되며 라디오 기능도 빠졌다.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